

노년기 동년배 대화에 나타난 지시 대명사 연구* **

김 정 선***

< 목 차 >

1. 머리말
2. 지시 대명사의 출현 양상
 - 2.1. 지시 대명사의 출현 형태와 빈도
 - 2.2. 노년기와 청년기의 지시 대명사 출현 양상 비교
3. 지시 대명사의 기능
 - 3.1. 지시 대명사의 기능 분류
 - 3.2. 노년기와 청년기의 지시 대명사 기능 비교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 대화에 나타난 노년기 여성의 지시 대명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노년기 화자 40명의 일상 대화 자료를 청년기 화자 40명의 자료와 비교하여 지시 대명사의 출현 형태와 빈도, 지시 대명사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가 청년기에 비해 지시 대명사의 출현 형태 수가 많았고, 출현 빈도도 2배 가까이 높았다. 둘째, ‘이, 그, 저’ 계열별 출현 빈도에서는 ‘그’ 계열은 청년기보다 출현 비율이 낮았지만 ‘저’ 계열은 청년기보다 크게 높았다. 셋째, 지시 대명사의 기능에서는 후행 문맥 지시 기능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넷째, 노년기에서는 청년기에 비해 간투사적 기능과 화자 상념 기능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7280)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2018년 1월 16일)을 받은 후 수행한 연구임 (HYI-17-244-2)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주제어: 노년기, 지시 대명사, 현장 지시 기능, 문맥 지시 기능, 상념 지시 기능, 화자 상념 지시 기능, 간투사적 기능

1.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 세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 인구가 2017년 총인구의 14.8%를 넘으며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다.¹⁾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신체적 및 의료적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문제, 사회심리적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년기에 대한 연구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²⁾

그러나 고령이 되면서 우리의 신체 기관, 인지 능력 등에서 저하되는 노화는 인간 발달 단계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노화에 따른 언어 능력의 변화는 노인과의 대화에서도 변화를 주게 되어 마치 성인이 아기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아기말투(Babytalk)’처럼 ‘노인형 언어(Elder speak)’를 사용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³⁾ 언중들이 쓰고 있는 ‘노인형 언어’는 노인의 대화는 다른 세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노인 언어에 대해서는 ‘치매’와 같이 인지 능력의 저하로 인한 언어병리적 접근이 주를 이루며 언어 능력의 판정에 필요한 평가 도구 개발, 언어 재활 프로그램

1) UN에서 정한 고령화사회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이상 14%미만인 경우를 고령화사회, 14%이상 20%미만일 때를 고령사회, 20%이상일 때를 초고령 사회라 부른다.

2)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노인은 통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법제처 2009)을 의미한다. 인간의 발달 단계를 생애주기로 구분할 때 만 65세 이후부터 죽음까지를 통상 노년기로 정의한다(김정완·김향희, <노년기 의사소통 기능 척도>, 《언어치료연구》 18집, 한국언어치료학회, 2009a, p.51)

3) 이정연, <한국 의료기관 종사자의 노인형 언어 사용 원인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p.3-7.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⁴⁾⁵⁾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상의 자연스러운 언어가 아닌 목표로 하는 언어 현상에 집중하여 과제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노년기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알려진 ‘대명사’의 사용은 인지의 노화와 관련하여 여러 논문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기억력 감퇴로 인해 표현 언어의 즉각적인 인출이 어려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는 주로 언어 병리학 등의 분야에서 설문조사나 실험 등을 통해 현상의 출현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과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발화 상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지시 대명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시 대명사는 사물의 명칭을 모르더라도 이들을 통해 사물, 장소, 인물 등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⁷⁾ 표면적 현상으로 노년기에 지시 대명

- 4) 김정완·김향희, <노년기 의사소통 기능 척도>, 《언어치료연구》 18집 2호, 한국언어치료학회, 2009a, pp.51-64.; 박현·신혜정·손명동, <노인들의 언어 문제와 언어 재활 인식에 관한 기초 조사>, 《언어치료연구》 21집 4호, 한국언어치료학회, 2012, pp.227-247.; 손은남·강수균, <알츠하이머형 치매 노인의 담화 유형에 따른 언어 능력 비교 분석>, 《언어치료연구》 15집 3호, 한국언어치료학회, 2006, pp.99-113.; 손은남, <치매의 의사소통 특성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24집 4호, 한국언어치료학회, 2015, pp.113-123.
- 5) 또한 노인 대화의 한 축은 부부 관계, 고부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박지은, <노인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1-108.; 박은아·이정우,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및 관련변인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23집 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5, pp.23-36.; 이두원,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대화 분석 연구: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0집 2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2, pp.7-45.; 박진옥, <결혼이주여성가족의 부부관계 및 고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적응과 갈등>,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6) 이름대기 능력의 저하는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의 감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정완·김향희, <노년층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문헌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4집 4호,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09b, p.502.)
- 7) 지시어의 이러한 특성으로 아동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지시어를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김순자·김명희, <지시어 ‘이’, ‘그’, ‘저’의 지시 기능 습득 과정>, 《텍스트언어학》 19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5, pp.63-82.)

사의 사용이 단순히 증가한다는 사실만을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시 대명사의 사용 양상이 다른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출현 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국어의 지시어에 대한 논의는 형태론적 논의, 변형생성문법적 논의 및 담화문법적 논의, 지시사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논의, 말뭉치언어학적 논의, ‘이, 그, 저’의 대립 체계에 대한 논의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⁸⁾ 특히 최근 민경모에서는 글말과 입말을 아울러 지시어의 용법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그, 저’가 글말에 비해 입말에서 약 2.8배 이상 많이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지시 대명사를 살펴보기 위해 노년기 동년배 대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노년기 언어 자료는 기관을 방문으로 빈 공간에서 2명씩 짝지어 1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나눈 일상 대화를 녹음하여 수집하였다.⁹⁾ 녹음 대상자는 도시 거주 노인 40명으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정 등 사회적 관계 형성에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는 정상 노인들이다. 정상 노인 검사는 녹음 전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K-MMSE)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수집한 녹음 자료는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입력하여 말뭉치로 구축하였으며, 전사는 세종말뭉치 구축 전사 지침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지시 대명사의 사용 양상을 다른 세대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비교 대상 자료는 20대 대학생의 대화 자료로 노년기 대화 자료와 동일한 규모와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이다.¹⁰⁾¹¹⁾ 이들 자료에

8) 민경모, <한국어 지시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시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9) 녹음 절차는 디지털 녹음기를 활용하여 조사원이 조사 목적과 녹음 방법을 설명하고, 녹음 일지를 작성한 후, 대화 참여자들 간에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다. 대화 참여자에게는 특정 주제를 제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를 나누도록 안내하였다. 녹음 일지에는 대화 참여자 정보(이름, 나이, 성별),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하였다.

10) 청년기 언어 자료는 <연령별 대화 말뭉치>(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령별 대화 말뭉치>의 자료 수집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빈 공간에서 대화 참여자가 특정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눈 일상대화를 녹음기를 이용해 수집하였다.

11)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성별 변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일성별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가 여성 화자만의 특성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성별 변인을 강조하지 않았다.

출현하는 지시 대명사의 형태 빈도와 기능을 분석하여 노년기 화자의 지시 대명사 사용상의 특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지시 대명사의 출현 양상

2.1. 지시 대명사의 출현 형태와 빈도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지시 대명사는 총 2,026회 출현하여 전체 어절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¹²⁾ 분석 자료 전체에서 출현한 지시 대명사의 형태는 30개로 목록은 (1)과 같다.

- (1) 거(거기), 거기, 고거, 고것, 고놈, 그, 그거, 그것, 그곳, 그놈, 그분, 그이, 그쪽, 여(여기), 여기, 여기, 요, 요거, 요것, 요기, 이거, 이것, 이놈, 이분, 이쪽, 저, 저거, 저것, 저기, 저이, 저쪽

(1)을 보면, 구어에 주로 나타나는 ‘그거, 이거, 저거’와 낮잡거나 귀엽게 가리키는 말인 ‘고거, 고것, 고놈, 요거, 요것’ 등이 출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고빈도 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2) 분석 자료는 한 파일당 2,000어절씩 전사하여 노년기 자료 40,550어절, 청년기 자료 42,075어절로 총 82,625어절이다.

〈표 1〉 지시 대명사의 출현 형태와 빈도(고빈도순)

순위	형태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순위	형태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그거	570	28.1%	28.1%	16	그	6	0.3%	98.5%
2	저기	293	14.5%	42.6%	17	그이	6	0.3%	98.8%
3	그것	273	13.5%	56.1%	18	거	4	0.2%	99.0%
4	저기	229	11.3	67.4%	19	이놈	4	0.2%	99.2%
5	여기	228	11.3%	78.6%	20	고거	3	0.1%	99.3%
6	이거	216	10.7%	89.3%	21	여(여기)	2	0.1%	99.4%
7	이것	57	2.8%	92.1%	22	요거	2	0.1%	99.5%
8	저거	30	1.5%	93.6%	23	이분	2	0.1%	99.6%
9	그분	18	0.9%	94.5%	24	저	2	0.1%	99.7%
10	이쪽	16	0.8%	95.3%	25	고것	1	0.0%	99.8%
11	그쪽	15	0.7%	96.0%	26	고놈	1	0.0%	99.8%
12	저것	13	0.6%	96.6%	27	그곳	1	0.0%	99.9%
13	그놈	11	0.5%	97.2%	28	요	1	0.0%	99.9%
14	저쪽	11	0.5%	97.7%	29	요것	1	0.0%	100.0%
15	요기	9	0.4%	98.2%	30	저이	1	0.0%	100.0%
전체							2026	10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 자료 전체에서는 지시 대명사 가운데 ‘그거’가 28.1%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그거, 저기, 그것, 저기, 여기, 이거, 저거, 이것’ 등 8개까지의 누적 비율이 93.6%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그거, 그것, 저기’의 ‘그’ 계열 형태가 전체의 56.1%를 차지하여, 24.6%의 ‘이’ 계열 형태, 13.4%의 ‘저’ 계열 형태보다 일상 대화에서 비중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노년기와 청년기의 지시 대명사 출현 양상 비교

앞 절에서 보인 형태들이 노년기와 청년기의 대화 자료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시 대명사의 전체 출현 빈도는 비슷한 수준의 자료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노년기는 1,292회, 청년기는 734회로 노년기가 2배 가까이 출현 빈도가 높았다.¹³⁾ 각 형태별 출현 빈도를 노년기와 청년기로 구분하여 빈도순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노년기와 청년기의 지시 대명사 출현 빈도(고빈도순)

노년기				청년기			
순위	형태	빈도	비율	순위	형태	빈도	비율
1	그저	324	25.1%	1	그저	246	33.5%
2	저기	210	16.3%	2	이저	127	17.3%
3	저기	177	13.7%	3	저기	116	15.8%
4	여기	176	13.6%	4	그것	111	15.1%
5	그것	162	12.5%	5	여기	52	7.1%
6	이저	89	6.9%	6	이것	24	3.3%
7	이것	33	2.6%	7	저기	19	2.6%
8	저저	24	1.9%	8	그쪽	8	1.1%
9	그분	16	1.2%	9	이쪽	6	0.8%
10	그놈	10	0.8%	10	저저	6	0.8%
11	이쪽	10	0.8%	11	저것	4	0.5%
12	저것	9	0.7%	12	저쪽	4	0.5%
13	그쪽	7	0.5%	13	그	3	0.4%
14	저쪽	7	0.5%	14	요기	3	0.4%
15	그이	6	0.5%	15	그분	2	0.3%
16	요기	6	0.5%	16	거	1	0.1%
17	이놈	4	0.3%	17	그놈	1	0.1%
18	거	3	0.2%	18	여(여기)	1	0.1%
19	고저	3	0.2%	총합계		734	100.0%
20	그	3	0.2%				
21	요저	2	0.2%				
22	이분	2	0.2%				
23	저	2	0.2%				
24	고것	1	0.1%				
25	고놈	1	0.1%				
26	그곳	1	0.1%				
27	여(여기)	1	0.1%				
28	요	1	0.1%				
29	요것	1	0.1%				
30	저이	1	0.1%				
총합계		1292	100.0%				

13) 노년기는 전체 어절 중 지시 대명사의 출현 빈도가 3.2%를 차지하였고, 청년기는 1.2%를 차지하였다.

<표 2>를 보면, 노년기와 청년기 모두 ‘그거’를 가장 고빈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년기의 ‘그거’의 사용 비율이 노년기에 비해 높았다. 고빈도 출현 빈도를 보이는 형태를 중심으로 ‘이, 그, 저’ 계열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¹⁴⁾ 노년기는 ‘그’ 계열 51.3%, ‘이’ 계열 23.1%, ‘저’ 계열 18.9%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청년기는 ‘그’ 계열이 64.%로 노년기보다 지시 대명사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 계열이 27.7%로 노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저’ 계열은 3.9%로 노년기와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노년기와 청년기의 지시 대명사의 형태 빈도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90.52, 유의확률 .000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

‘이, 그, 저’ 계열별 출현 빈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았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 고빈도 형태인 ‘이것, 그것, 저것’과 ‘여기, 거기, 저기’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볼 도록 한다.¹⁶⁾ 먼저 ‘이것, 그것, 저것’의 출현 빈도이다.

〈표 3〉 노년기와 청년기의 ‘이것, 그것, 저것’의 출현 빈도

형태	노년기		청년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것	125	19.3%	151	29.2%
그것	491	75.7%	357	68.9%
저것	33	5.1%	10	1.9%
전체	649	100.0%	518	100.0%

위 <표 3>을 보면 노년기와 청년기 모두 ‘그것>이것>저것’의 순으로 사용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청년기에서 ‘그것’과 ‘저것’은 노년기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14) ‘이’ 계열은 ‘이거, 이것, 여기’를 ‘그’ 계열은 ‘그거, 그것, 저기’를, ‘저’ 계열은 ‘저거, 저것, 저기’를 말한다.

15) 통계적 검증은 SPSS 24.0을 활용하였다.

16) <표 3>의 ‘이것, 그것, 저것’은 구어 형태인 ‘이거, 그거, 저거’와 귀엽게 이르는 말인 ‘요것, 고것’을 합친 결과이다. ‘여기, 거기, 저기’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다.¹⁷⁾ 이러한 출현 빈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x^2 검정을 실시한 결과 x^2 통계값은 21.49, 유의확률 .000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여기, 거기, 저기’의 노년기와 청년기의 출현 빈도이다.

<표 4> 노년기와 청년기의 ‘여기, 거기, 저기’의 출현 빈도

형태	노년기		청년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기	183	31.9%	56	29.2%
거기	180	31.4%	117	60.9%
저기	210	36.6%	19	9.9%
전체	573	100.0%	192	100.0%

<표 4>를 보면, 노년기는 ‘저기>여기>거기’의 순으로, 청년기는 ‘거기>여기>저기’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기’는 노년기와 청년기에서 비슷한 비율로 출현하고 있으며, ‘거기’는 청년기에서 ‘저기’는 노년기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x^2 검정을 실시한 결과 x^2 통계값은 67.03, 유의확률 .000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17) 모어 화자 자료에서 지시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의 1000어절당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도 ‘그것>이것>저것’의 순으로 나타났다(채숙희, <한국어교재의 지시어 분석>, 《한민족어문학》 7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p.116.)

18) 모어 화자 자료에서 지시 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의 1000어절당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여기>거기>저기’의 순으로 나타났다.(채숙희, <한국어교재의 지시어 분석>, 《한민족어문학》 7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p.116.)

3. 지시 대명사의 기능

3.1. 지시 대명사의 기능 분류

지시어의 기능에 대해서는 장경희¹⁹⁾에서 ‘실제적 지시, 상념적 지시, 기호적 지시’로 구분한 이후, 김일웅²⁰⁾, 김순자·김명희²¹⁾, 민경모²²⁾ 등 여러 연구에서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지시 대명사의 기능을 ‘현장 지시 기능, 문맥 지시 기능(선행 문맥 지시, 후행 문맥 지시), 상념 지시 기능, 화자 상념 지시 기능, 간투사적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담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현존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현장 지시 기능’은 ‘실제적 지시, 화맥적 지시’ 등으로 불리는 것이고, ‘문맥 지시 기능’은 ‘기호적 지시, 조응’ 등으로 불리는 것이다.

(2) 나도 이거 다쳐서 이거 다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 <C05>

(3) 뇌졸중 그거 그래도 약간 오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많이 옆에 살면 신물이 나나봐. <C07>

(4) 오늘 하루만 갔다 오고 저것만 먹으면 될 거야 진통제만. <C25>

(2)는 현장 지시의 예로 대화 현장에서 신체의 일부와 행동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다. (3), (4)는 문맥 지시의 예인데, 지시 대명사가 지시 대상의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선행 문맥 지시, 후행 문맥 지시로 구분한다. (3)은 지시 대명사 ‘그 거’가 선행하는 문맥을 지시하는 것이고, (4)는 지시 대명사 ‘저것’이 후행하는 문맥을 지시하는 예이다.²³⁾

19) 장경희,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16집 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80, pp.167-184.

20) 김일웅, <지시의 분류와 지시사 ‘이’, ‘그’, ‘저’의 쓰임>, 《한글》 178집, 한글학회, 1982, pp.53-88.

21) 김순자·김명희, <지시어 ‘이’, ‘그’, ‘저’의 지시 기능 습득 과정>, 《텍스트언어학》 19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5, pp.63-82.

22) 민경모, 앞의 논문.

23) 민경모, 위의 논문, p.198에서는 이처럼 선행 발화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발화를

다음으로 상념 지시는 화자와 청자의 마음속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념적 지시, 상념 지시’ 등으로 불리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념 지시 이외에 화자 자신의 상념에만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은 화자 상념 지시라 부르기로 한다. 상념 지시와의 차이는 가리키는 대상이 대화에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노년기 인지 능력의 퇴화로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인다.

(5) 1:아, 그 저기 매장?

2:응. 장사가 거길 와 갔고. <C58>

(6) 1:나는 다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 이 근육을.

2:근육 있네. 근육 있어.

1:저기 하느라고 나도 걸어 걷기는. <C36>

(5)는 상념 지시의 예로 화자1의 상념 속에 존재하는 ‘저기’를 화자2도 ‘거기’로 받으며 서로의 상념 속에 공동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6)은 화자 상념 지시의 예로 화자1이 ‘저기’라고 표현한 것은 대화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며 화자의 상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지시 대명사는 대화에서 간투사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²⁴⁾ 대표적인 형태가 ‘저기’인데 사전에서는 감탄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감탄사 ‘저기’는 지시 대명사 ‘저기’가 담화 내에서 갖게 된 기능으로 ‘저기’의 기본 의미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지시 대명사의 기능 중 하나로 파악하였다.

(7) 현00, 저기 연00. 연00인가 또 저기 뭐야 조00. 또 조00하고 또 저기 뭐야. 이름도 잊어버렸네. <C50>

(7)에서 화자가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하나씩 꺼내며 생각이 잘 나지 않자 ‘저기’를 사용하고 있다. ‘저기’의 본래 의미 기능은 장소 지시로 대화에서 화자가 자신의 인지 영역 안에 있는 정보를 가리키며 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참조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행 참조라 하였다.

24) 지시어 중 ‘저기, 그, 저’ 등이 감탄사로도 쓰여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즉 생각이 잘 나지 아니할 때에 자신의 인지 영역 내에 있는 정보를 가리키고 이때 정보를 정확히 찾지 못해 심리적 거리가 느껴지므로 ‘저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⁵⁾ 화자 상념 지시와 마찬가지로 간투사적 기능은 인지 능력의 퇴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설명한 지시 대명사의 기능이 자료에서 어떠한 출현 양상을 보이는 빈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지시 대명사의 기능별 출현 빈도

기능	빈도	비율	
현장 지시 기능	460	22.7%	
문맥 지시 기능	선행 문맥 지시	985	48.6%
	후행 문맥 지시	210	10.4%
상념 지시 기능	120	5.9%	
화자 상념 지시 기능	126	6.2%	
간투사적 기능	117	5.8%	
기타	8	0.4%	
총합계	2026	100.0%	

<표 5>를 보면 자료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지시 대명사의 기능은 48.6%의 비율을 보인 선행 문맥 지시 기능이다. 그 다음으로는 현장 지시 기능 22.7%, 후행 문맥 지시 기능 10.4%의 순이다. 현장 지시 기능과 문맥 지시 기능이 전체의 81.7%를 차지해 지시 대명사의 주된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상념 지시 기능, 화자 상념 지시 기능, 간투사적 기능은 5~6%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3.2. 노년기와 청년기의 지시 대명사 기능 비교

이 절에서는 노년기의 지시 대명사의 기능을 청년기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

25)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저기’의 뜻풀이는 「1」 생각이 잘 나지 아니할 때에 쓰는 말. 「2」 말을 꺼내기 거북할 때에 쓰는 말. 로 되어 있다.

보기로 한다. 먼저 노년기와 청년기의 지시 대명사 기능별 출현 빈도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노년기와 청년기의 지시 대명사 기능별 출현 빈도

기능	노년기		청년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장 지시 기능	268	20.8%	192	26.2%	
문맥 지시 기능	선행 문맥 지시 기능	592	45.9%	393	53.5%
	후행 문맥 지시 기능	131	10.1%	79	10.8%
상념 지시 기능	81	6.3%	39	5.3%	
화자 상념 지시 기능	111	8.6%	15	2.0%	
간투사적 기능	107	8.3%	10	1.4%	
기타	2	0.2%	6	0.8%	
총합계	1292	100.1%	734	100.0%	

현장 지시 기능과 선행 문맥 지시 기능은 청년기의 출현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화자 상념 지시 기능, 간투사적 기능은 노년기의 출현 비율이 약간 높았다. 후행 문맥 지시 기능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일상 대화에서 노년기의 지시 대명사의 기능은 현장 지시 기능과 문맥 지시 기능에서는 청년기와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청년기에는 매우 낮은 비율로 출현하는 화자 상념 지시 기능과 간투사적 기능이 노년기에는 8% 이상 나타나 이러한 측면이 노년기 언어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노년기와 청년기의 지시 대명사의 기능별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90.52, 유의확률 .000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노년기와 청년기에 따라 지시 대명사의 기능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시 대명사의 기능에서 보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높은 출현 비율을 보인 지시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과 ‘여기, 거기, 저기’를 중심으로 기능별 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 7>은 ‘이것, 그것, 저것’의 기능별 출현 빈도이다.

〈표 7〉 노년기와 청년기의 ‘이것, 그것, 저것’의 기능별 출현 빈도

	기능		노년기		청년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것	현장 지시 기능		59	47.2%	109	72.2%
	문맥 지시 기능	선행 문맥 지시 기능	35	28.0%	31	20.5%
		후행 문맥 지시 기능	13	10.4%	7	4.6%
	상념 지시 기능		9	7.2%	2	1.3%
	화자 상념 지시 기능		6	4.8%	0	0.0%
	간투사적 기능		2	1.6%	1	0.7%
	기타		1	0.8%	1	0.7%
	소계		125	100.0%	151	100.0%
그것	현장 지시 기능		3	0.6%	6	1.7%
	문맥 지시 기능	선행 문맥 지시 기능	382	77.8%	265	74.2%
		후행 문맥 지시 기능	40	8.1%	50	14.0%
	상념 지시 기능		32	6.5%	26	7.3%
	화자 상념 지시 기능		28	5.7%	7	2.0%
	간투사적 기능		6	1.2%	1	0.3%
	기타			0.0%	2	0.6%
	소계		491	100.0%	357	100.0%
저것	현장 지시 기능		9	27.3%	6	60.0%
	선행 문맥 지시 기능	선행 문맥 지시 기능	5	15.2%	1	10.0%
		후행 문맥 지시 기능	10	30.3%	1	10.0%
	상념 지시 기능		3	9.1%	1	10.0%
	화자 상념 지시 기능		5	15.2%		0.0%
	기타		1	3.0%	1	10.0%
	소계		33	100.0%	10	100.0%

〈표 7〉에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년기는 ‘이것’으로 현장 지시 기능 47.2%, 선행 문맥 지시 기능 28.0%, 후행 문맥 지시 기능 10.4%, 상념 지시 기능 7.2%, 화자 상념 지시 기능 4.8%를 수행하였다. 이에 반해 청년기는 현장 지시 기능이 72.2%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선행 문맥 지시 기능 20.5%로, 후행 문맥 지시 기능 4.6%로 노년기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것’의 경우는 노년기와 청년기 모두 선행 문맥 지시 기능이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청년기에서 후행 문맥 지시 기능이 노년기보다 높은 비중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화자 상념 지

시 기능의 ‘이것’도 노년기가 청년기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저것’은 출현 빈도가 노년기 33회, 청년기 10회로 낮았으며, 노년기는 간투사적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청년기는 현장 지시 기능이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것’은 χ^2 통계값은 25.50, 유의확률 .000, ‘그것’은 χ^2 통계값 22.80, 유의확률 .002로 유의수준 .05에서 노년기와 청년기에 따른 기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저것’은 χ^2 통계값 6.06, 유의확률 -.3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여기, 거기, 저기’의 기능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8〉 노년기와 청년기의 ‘여기, 거기, 저기’의 기능별 출현 빈도

형태	기능		노년기		청년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기	현장 지시 기능		164	89.6%	53	94.6%
	문맥 지시 기능	선행 문맥 지시 기능	7	3.8%	1	1.8%
		후행 문맥 지시 기능	8	4.4%	2	3.6%
	상념 지시 기능		2	1.1%	0	0.0%
	화자 상념 지시 기능		2	1.1%	0	0.0%
	소계		183	100.0%	56	100.0%
거기	현장 지시 기능		5	2.8%	2	1.7%
	문맥 지시 기능	선행 문맥 지시 기능	118	65.6%	84	71.8%
		후행 문맥 지시 기능	17	9.4%	16	13.7%
	상념 지시 기능		17	9.4%	8	6.8%
	화자 상념 지시 기능		22	12.2%	5	4.3%
	간투사적 기능		1	0.6%	0	0.0%
	기타			0.0%	2	1.7%
소계		180	100.0%	117	100.0%	
저기	현장 지시 기능		7	3.3%	8	42.1%
	문맥 지시 기능	선행 문맥 지시 기능	7	3.3%	0	0.0%
		후행 문맥 지시 기능	41	19.5%	2	10.5%
	상념 지시 기능		10	4.8%	0	0.0%
	화자 상념 지시 기능		47	22.4%	2	10.5%
	간투사적 기능		98	46.7%	7	36.8%
소계		210	100.0%	19	100.0%	

‘여기’는 노년기와 청년기 모두 현장 지시 기능이 90%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른 기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기’는 노년기와 청년기 모두 선행 문맥 지시가 각각 65.6%, 71.8%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노년기는 상념 지시 기능이 청년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기’는 노년기에서는 간투사적 기능이 46.7%로 가장 높은 빈도로 수행되었으며 그 다음은 화자 상념 지시 기능으로 22.4%, 후행 문맥 지시 19.5% 순으로 출현하였다. 이에 반해 청년기는 현장 지시 기능이 42.1%, 간투사적 기능이 36.7%, 후행 문맥 지시 기능이 10.5%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출현 빈도가 노년기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저기’가 x^2 통계값이 59.50,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노년기와 청년기에 따른 기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여기’는 x^2 통계값이 1.94, $p=.746$, ‘거기’는 x^2 통계값이 11.12, $p=.08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일상 대화에 나타난 노년기의 지시 대명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노년기 화자 40명이 동년배와 나눈 일상 대화 자료를 청년기 화자 40명의 자료와 비교하여 지시 대명사의 출현 형태와 빈도, 지시 대명사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년기가 청년기에 비해 지시 대명사의 출현 형태 수가 많았고, 출현 빈도도 2배 가까이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 노년기 언어의 특징으로 대명사의 사용이 많다는 지적이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출현 빈도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위한 것인지 지시 대명사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노년기에서는 청년기에 비해 간투사적 기능과 화자 상념 기능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결국 노년기의 지시 대명사 사용은 지시 대명사의 본래 기능인 현장 지시 기능, 문맥 지시 기능에서는 청년기와 큰 차이가 없었고, 간투사적 기능과 화자 상념 기능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인지 능력에 따른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인간의 언어 발달 연구는 습득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제는 인간 언어의 퇴화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언어 발달의 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지시 관형사, 지시 용언 등은 지시 대명사와는 또 다른 특성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후고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김순자·김명희, <지시어 ‘이’, ‘그’, ‘저’의 지시 기능 습득 과정>, 《텍스트언어학》 19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5.
- 김일웅, <지시의 분류와 지시사 ‘이’, ‘그’, ‘저’의 쓰임>, 《한글》 178집, 한글학회, 1982.
- 김정완·김향희, <노년기 의사소통 기능 척도>, 《언어치료연구》 18집 2호, 한국언어치료학회, 2009a.
- 김정완·김향희, <노년층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문헌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4집 4호,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09b.
- 민경모, <한국어 지시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박은아·이정우,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및 관련변인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23집 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5.
- 박지은, <노인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진옥, <결혼이주여성가족의 부부관계 및 고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적응과 갈등>,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박현·신혜정·손명동, <노인들의 언어 문제와 언어 재활 인식에 관한 기초 조사>, 《언어치료연구》 21집 4호, 한국언어치료학회, 2012.
- 법제처, 《노인복지법》, 2009.
- 손은남, <치매의 의사소통 특성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24집 4호, 한국언어치료학회, 2015.

- 손은남·강수균, <알츠하이머형 치매 노인의 담화 유형에 따른 언어 능력 비교 분석>, 《언어치료연구》 15집 3호, 한국언어치료학회, 2006.
- 이두원,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대화 분석 연구: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0집 2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2.
- 이정연, <한국 의료기관 종사자의 노인형 언어 사용 원인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 장경희,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16집 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80.
- 전은주,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과업과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50집 1호, 국어교육학회, 2015.
- 채숙희, <한국어교재의 지시어 분석>, 《한민족어문학》 7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 Carlson, G., Reference, in Laurencer, Horn and Gregory Ward(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Publishing, 2004.
- Critchley, M., And all the daughters of musick shall be brought low: Language functioning in the elderly, *Archives of Neurology*, 41, 1984.

<Abstract>

Kim, Jungsun. *A Study on Demonstrative Pronouns Appearing in the Conversation of Old-aged Peer Groups*. 2020.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spects of demonstrative pronouns used by old-aged people in ordinary conversations. Thus, by comparing the data of 40 old-aged speakers' ordinary conversations with that of another 40 young speakers' ordinary convers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functions of demonstrative pronouns as well as the appearance form and frequency of demonstrative pronouns.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old-aged group showed more forms of demonstrative pronouns than the young group and even about twice more in the appearance frequency than the young group. Secondly, when analyzing the series of 'Yi,' 'Geu', and 'Jeo',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old-aged group showed a lower frequency of 'Geu', but a much higher frequency of 'Jeo' than the young group. Thirdly, when analyzing the functions of demonstrative pronoun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following context demonstrative function was used most frequently. Lastly, the old-aged group showed higher frequencies of interjectional function and speaker's thought demonstrative function than the young group.

Keywords: Old-aged, Demonstrative pronoun, Spot demonstrative function, Context demonstrative function, Thought demonstrative function, Interjectional function, Speaker's thought demonstrative function

* 이 논문은 2020년 3월 23일에 투고되어 2020년 4월 9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4월 13일에 편집 위원회를 통해 게재가 결정되었습니다.